Entertainment p/24

강호동 1년만에 방송복귀

metro

메트로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제259[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단 1cm도 안크는 키 성장제

NEWS p/03

핼러윈 파티도 싸이 독무대

GLOBAL p/08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운전면허증에 희망의씨앗을 심어주세요

www.obos3042.or.kr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 제도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장기등기증희망등록과 함께 신청하여 운전면허증 갱신, 재발급 시 사진 하단에 희망의씨앗 생명나눔 BI와 "장기기증" 문구가 자동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제2항제1호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 중 원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metro
메트로 2012년 10월 30일 화요일 제259?호 www.metroseoul.co.kr

대출 갈아타기 '저금리의 유혹'

시중은행들 신규대출금리 年 5.13% 역대 최저
"한푼이 어디냐" 고정·변동 놓고 저울질 한창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빌렸다. 연 6.7%로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었다. 올해부터 이자에 원금을 더해 상환이 시작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5년 만기 연 4.8% 고정금리로 대출을 전환했다. 이전 대출이 3년을 지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쉽게 전환할 수 있었다. 1년에 대출이자만 400만원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됐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2010년 한 캐피탈회사에서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을 혼용해 연 6.8%로 6300만원을 대출받아 2년 좀 넘게 썼다.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았다. 최근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것을 알고 금리비교 서비스 업체에 상담한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다. DTI가 100%까지 넘은 상품이어서 400만원 더 증액한 6700만원을 연 4.1%로 대출받았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2~4년 전 은행에서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기지777 관계자는 "리먼사태가 터졌던 2008년 이후 한동안 금리가 높았다"며 "당시 연 6~7%대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최근 들어 갈아타기를 상담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금리하락 추세에 맞춰서 (대출)금리가 낮은 상품, 특히 적격 대출로 갈아타려는 분들이 많다"면서 "금융당국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는 것과 상관없이 고객들이 알아서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대출금리도 떨어져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이 많아 있다"며 "다만 (대출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가계대출금리는 4.86%

대출 갈아타기 열풍은 신규 대출금리의 하락 때문이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13%로 한 달 전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996년부터 금리 통계를 집계한 뒤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4.86%로 두 달째 4%대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4.29%)과 집단대출(4.39%) 금리도 한 달 전보다 각각 0.12%포인트, 0.07%포인트 내렸다.

2금융권의 대출금리도 모두 떨어졌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14.37%)는 0.18%포인트 내렸다. 신용협동조합 대출금리도 0.10%포인트 하락한 6.97%였다.

◆중도상환 수수료 등 고려해야

기존 고정금리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이 갈아타기를 시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중도상환수수료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분 대출 시작 후 3년까지 총 대출금의 1.5% 정도다. 1억원 대출에 150만원 정도 수수료를 낸다는 의미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DTI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여신 기준이 까다로워서 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 대출 상품과 대출 시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차이가 나니 대출이자 감소분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일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감소분보다 많다면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갈아탈 때는 일반적으로 장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현재의 저금리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언제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 있어서다. 물론 저금리 기조라도 단기 대출에는 변동금리가 나을 수도 있다.

부동산리서치 관계자는 "추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있어 변동금리 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며 "3년 이내 상환할 계획이 있는 단기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re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특별한 목도리 뜨는 미스코리아들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D-100 기념행사 '스페셜 스카프 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한 미스코리아 출신들의 모임인 녹원회 회원들이 29일 서울 ○○구 서울컨벤션에서 목도리를 뜨고 있다. 에도리 색상은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마스코트인 파란 반달곰 레(Re) 빨간색 별 '민(In)' 초록 멍차기 '게 뷰우(Bow)'에서 따왔다. /뉴시스

찬바람 부는데 웽~웽 가을모기 기승… 일교차 커 42% 증가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현주(52)씨는 최근 큰맘 먹고 전자 모기채를 장만했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인데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루에도 모기를 대여섯 마리씩 잡는다"며 "가을 모기는 힘을 못 쓴다는데 이상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29일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7월부터 13일까지 수도권을 포함한 10개 지역의 모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모기 수는 2만227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679마리에 비해 42.1% 증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경우 이번 달 2907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80마리보다 무려 54.6%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다음 달 초까지 모기 개체가 계속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질병매개곤충과 관계자는 "지난 여름은 폭염과 폭우로 모기 개체가 증식하기 어려웠던 반면 이번 달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고 일교차가 커 모기 서식에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 모기약 판매량 덩달아 급증

가을 모기 덕분에 유통업체들은 때 아닌 대목을 맞았다. 이달 상순 대형마트별 모기약 매출을 살펴보면 이마트는 53.8%, 롯데마트는 55.7%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 유충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집 안에 고인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면 모기들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므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계단, 정화조, 건물 지하실, 보일러실 주변 방역에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기자 [illegible]

◆ 가을 모기 이렇게 없애세요

① 출출을 [illegible] 반드시 모기를 사용하기 ② 사용하지 않는 [illegible] 욕실 배수구·하수구 구멍 막기 ③ 모기 주활동 시간인 밤 1?시~새벽 4시 사이 외출 삼가기

④ 살충제를 [illegible] 사용하고 자자체 방역에 적극 동참 ⑤ 모기 물린 후 이상 증세가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⑥ 라벤더·제라늄 등 모기가 싫어하는 식물 실내에 놓기

76억 횡령 공무원 '무일푼'

아내 사채빚 갚는 등 모두 탕진해 환수 어려울 듯

3년 동안 76억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회계과 8급 공무원 김모(46)씨의 통장 잔고는 현재 바닥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횡령금 환수 가능성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속 수감 중인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 김모씨를 국가 손실,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 김씨는 지난 3년 동안 아내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직원들의 세금과 자신의 급여까지 부풀리는 수법으로 76억원을 빼돌렸다.

이 중 48억원은 아내가 사채 놀이로 진 빚을 갚는 데 썼으며 아파트 등 부동산과 차량 구입, 생활비에 15억원, 대출금 상환 7억4000만원,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과 차량 3대 구입자금으로 4억9000만원 등을 썼다.

검찰은 "그동안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던 수십억원은 빚 청산용으로 사라진 것이 확인돼 더 이상의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 혈세를 회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던 여수시의 계획도 소득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김씨의 양형도 높아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서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김승회기자 unique@

검은돈 판치는 농구계

'편파판정·금품수수' 심판·감독 등 151명 적발

특정 팀에 유리한 판정으로 승부를 조작하면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농구계 최대 스캔들이 터졌다.

부산경찰청 수사2계는 각종 대회에서 유리한 판정과 우승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뢰, 배임수재)로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등 협회 관계자, 심판, 감독·코치, 학부모 등 1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농구협회 부회장 진모(62)씨, 심판위원장 정모(60)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초·중·고·대, 실업팀 코치, 감독 등 97명으로부터 게임에 유리한 특정심판 배정청탁을 받고 256차례에 걸쳐 차명계좌 등으로 1억90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모(33)씨 등 심판 16명은 같은 기간 감독·코치들로부터 '판정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모두 155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전후에 감독들에게 전화해 금품상납을 요구했으며 우승팀에게는 '축승금' 의 명목으로 추가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전 국가대표 출신 모 여고 농구코치 박모(48)씨 등 전국 농구 감독·코치 97명과 학부모 등 131명은 이 기간 농구협회 심판장, 심판 등에게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2억4000만여 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동호기자 elsaer@metroseoul.co.kr

태평양 바다 위에서도 대선투표 29일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 부두에 정박 중인 한바다호에서 부산시선관위 주최로 열린 모의 선상 부재자투표에 참가한 선원 200여 명이 투표소가 설치된 배 위에서 선상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학부모 65% 스마트폰 때문에 자녀와 갈등

음란물보다 중독이 더 걱정

학부모 절반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우려하고 있다.

KT와 유해정보 차단서비스 업체 플랜티넷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인천·대전·강원 지역 총 24개 학교 학부모 1393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 걱정되는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 학부모의 48.1%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가장 걱정했다. 다음으로는 음란물(36%), 카카오톡(8%), 성적 하락(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딸(47.8%)보다 아들(52.2%)을 둔 부모가, 연령대로 보면 중학생 자녀(58.3%)를 둔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을 더 우려했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65.2%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85%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초등학생 고학년(4~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64%),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51%) 순이었다.

학부모와 자녀 간 스마트폰을 둘러싼 갈등 원인으로는 사용시간이 4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게임(32.3%),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20.5%), 기타(0.8%) 등이 뒤따랐다. /박선올기자

이상은씨 내일 소환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은 31일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서 30일로 소환 일정을 통보했지만 참고인인 이 회장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3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에게 6억원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상대로 돈의 출처와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시형씨와 이 회장, 다스의 거래추적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형씨가 달리 번복 진술한 돈을 빌린 날짜 등에 대한 확인 작업도 벌일 계획이다. /배동호기자

냉동실서 얼리고 오븐에 굽고 물에 넣었더니

'갤스3' 고문테스트 승리

아이폰5와 갤럭시S3의 감성을 테스트한 동영상이 네티즌을 사로잡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에는 '고문테스트'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등록됐다. '아이폰5 고문테스트' 동영상은 6만3000여 건, '갤럭시S3 고문테스트'는 16만여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 아이폰5 보다 흠집 적어

동영상 제작진은 두 제품에 대해 2시간 이상 냉동실에 넣는 냉동 테스트, 200도 이상의 오븐에 제품을 수건으로 감싸서 1시간 동안 가열하는 열 테스트 등을 했다.

이외에도 어항과 변기 속에 제품을 넣어 방수 기능을 점검했고,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일부러 시멘트 바닥에 제품을 긁기도 했다.

두 제품 모두 테스트를 잘 견뎌지만 대체로 갤럭시S3가 우세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스크래치 테스트에서 갤럭시S3는 열쇠로 전면 유리를 긁었지만 별 다른 흠집이 생기지 않았다. 반면 아이폰5는 옆면과 뒷면에 심하게 긁혔고 낙하 테스트에서는 유리에 금이 갔다.

/박성훈기자 zen@

1년 먹으면 10㎝ 자란다는 말에 1080만원 주고 샀는데 1㎝도 크지않은 키

제2의 허경환 울렸다

'키 성장제' 피해주의보 발령

#1. 주부 A씨는 인터넷에서 '1년에 10㎝ 이상 클 수 있다'는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자녀 두 명의 약을 1080만원에 구입했다. 자녀들에게 키 성장제를 6개월간 섭취하도록 했지만 1㎝도 크지 않았다.

#2. 20대 대학생 B씨는 병원에서 성장판이 닫혀 키 성장이 어렵다는 진단을 들었다. 하지만 키 성장제 판매업체에서는 '성장판이 닫혔어도 4㎝ 더 클 수 있다'고 해 2년 가까이 3%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품을 사서 먹었지만 키는 그대로였다.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채 비싼 값에 팔리고 있는 각종 키 성장제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 가운데 상당수 제품들이 객관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고, 일부 제품은 공급가보다 최대 50배에 가까운 고가로 판매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지만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우거나 고객 사용후기를 거짓으로 꾸며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장 용기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돼 있어도 실제 개발·제조는 별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다. 가격도 공급가보다 최대 50배나 비싸게 팔았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원 수준이지만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만~400만원 이상에 구매하도록 했다.

회사원 C씨의 경우 집으로 찾아온 키 성장제 판매사원의 설명을 듣고 308만원에 샀지만 같은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에선 10분의 1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환불 받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포장 용기에 적힌 제조원 등을 확인한 뒤 구입하기 전 식약청과 의사 등 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과 병원진단서를 보관해야 한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아빠·여보 힘내세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나·기(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주최로 열린 '남편&아버지 기 살리기 클럽' 창립 총회에서 회원들이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춰 가족스타일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로호 다음달 9~24일중 3차 발사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내달 9~24일 사이 3차 발사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9일 나로호 3차 발사 일정 논의를 위한 발사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발사가능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55분 사이이다.

노경원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은 "다음달 초까지는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발사가 가능하지만 겨울로 갈수록 '발사 윈도'(우주 발사체를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 시간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항우연은 "러시아 측에서 파손된 실(seal·고무링)을 모스크바로 보내 추가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우리 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효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해외>

글·그림 박상철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에 KO승 1974년 10월 30일, 아프리카 자이레의 수도 킨샤사에서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이 세기 헤비급 타이틀을 놓고 겨루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다. 32세의 알리는 복서로서 노장에 접어들었고, 25세의 포먼은 KO율 92.7%로 사상 최강의 주먹이라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7회까지 일방적으로 알리를 몰아붙이던 포먼이 공격하다 지치자 8회 들어 알리가 집중타를 퍼부으며 승기를 잡았고 결승 후계 이른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극적인 KO승을 거두었다.

지하철 9호선 코엑스몰과 연결

2014년부터 지하철 9호선이 곧바로 코엑스몰과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인 929정거장(코엑스 사거리)과 코엑스몰 광장을 바로 연결하는 출입구 설치 계획을 29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연결 출입구 설치에 대해 한국무역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며 "시민들의 이동 편의와 쇼핑몰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가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55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는 출입구 건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현재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통한 코엑스몰 이용자는 일평균 약 8만 명(코엑스 추산)이다.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과 코엑스를 긴 연결 출입구가 설치되면 그 이상의 유동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은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은 지하철 출입구 유치를 위한 좋은 사례"라며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편의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영계' '급사' 치고받는 새누리-민주

정치권에 막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영계' 발언 파문에 대해 "회사에서는 자주 그렇게 얘기하는데"라며 "제가 공인이 됐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조심하고, 사과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24일 사진을 찍던 젊은 당직자에게 "나 영계 좋아하는데 가까이 와서 찍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성(性)누리당의 본성이 되살아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김광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했다.

김성주 위원장 김광진 의원

지난 19일 국감 현장에서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을 '친일 민족반역자'로 지칭한 것과 올 1월 자신의 트위터에 '명박 급사(急死)' 표현을 리트윗한 사실, 지난해 11월 보수단체인 '비전어버이연합'에 대해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 등의 글을 트윗한 사실을 들어 징계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의 표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문 후보 캠프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다.

/배동호기자 [illegible]

동상삼몽?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왼쪽부터)가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공독상관찰의기운동 전국대표자회의에 참석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뉴시스

화끈한 文 vs 미지근한 安

문측 "단일화 협상 다음 주 시작될 것"… 안측 "10월도 안 지났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범야권 후보 단일화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님과의 단일화는 반드시 되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집권 후 여소야대 국면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후보 단일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력 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저와 민주당이 가진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문 후보 측 박영선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단일화를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는 지적에 대해 "11월 25일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그렇다"며 "이번 주는 탐색전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점을 거론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담판도 좋고 경선도 좋고 어떤 식이든 좋다"며 "그 방법이 어떻든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 있는 단일화면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의 단일화 논의 시점은 11월 10일 공약집 발표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안 후보 측은 공약집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 이전까지는 단일화에 대한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민주당의 적극적인 단일화 시점 제시에 대해 "10월의 마지막 밤도 안 지났다"며 "정권교체+정치혁신을 이루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 승리하겠다는 말로 대신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유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지원을 받는 남수단 보르 지역의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 /김연욱 재능기부 사진 작가

"학교다~" 맨발로 달려온 아이들

어린이재단, 아프리카 남수단에 초등학교 건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www.childfund.or.kr)이 아프리카 남수단에 국가사무소를 개소한 지 7개월여 만에 종글레이주 마따왕초등학교 건립이라는 첫 결실을 맺었다.

완공식에 맞춰 지난 20~27일 이 지역을 방문한 재단 홍보대사 김경란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이제훈 회장은 오랜 내전과 부족 간의 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보듬고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39년간 두 차례 내전으로 250만 명이 목숨을 잃은 남수단은 지난해 7월 독립했으며 종글레이주 보르 지역은 수도 주바에서 약 200km 떨어진 지역이다.

어린이재단은 섬계수단이 부족, 학교 교육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종글레이주 내 난민 아동들을 위해 마따왕학교를 개소하고 1~4학년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4개 클래스를 열었다.

남수단에는 부족한 여건과 상황으로 취학하지 못한 아동이 130만 명에 달한다. 200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남수단 학교의 교사 중 절반 이상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란 아나운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한국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희망나눔센터 1588-1940

/배동호기자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민들이 '허리케인 공포'로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면서 슈퍼마켓의 빈 진열대가 텅 비어 있다 /AP 뉴시스

<프랑켄슈타인+스톰>

'프랑켄스톰' 공포

24년 만에 최대 규모 허리케인 '샌디' 美 상륙 초읽기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카리브 해역을 통과하면서 최소 66명의 인명을 앗아간 샌디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 해안으로 접근 중이다. 샌디는 29일 밤이나 30일 오전 델라웨어주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인 5000만~6000만명 영향

미 언론은 샌디를 '프랑켄스톰'이라고 허리케인 등으로 표현하면서 미국 국토의 3분의 1, 국민 5000만~6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샌디는 대서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는 24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05년 미 남부를 초토화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능가하는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원 세스 구이케마는 "기상 모델 분석 결과 샌디의 여파로 최대 1000만 명이 며칠간 전기가 끊기는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시와 뉴욕주, 코네티컷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모든 지방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다. 워싱턴 DC와 뉴욕시는 휴교령을 내리고 지하철과 버스 운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상 당국도 폭우와 폭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동부 해안에서 오대호까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안 지역 수십만 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허리케인이 어느 곳을 덮칠지, 어느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른다"면서 "앞으로 며칠간은 주 및 지방 정부의 지시와 조언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합주를 포함해 조기 투표 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샌디'는 미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i요트' 잡스 마지막 유작답네

단순·세련 '비너스호' 진수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직접 디자인한 요트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더버지 등 미국 언론들은 28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알스미어에서 잡스의 요트 '비너스(사진)'가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미(美)를 요의 여신에서 이름을 따온 비너스는 잡스가 사망 직전까지 디자인 수정작업을 할 정도로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서 처음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아이작슨은 비너스에 대해 "세련되고 단순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70~80m 길이의 이 요트는 티크 목재 갑판과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유리창이 설치돼 있으며 내부에 27인치짜리 맥컴퓨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는 등 잡스의 전기에서 묘사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요트 진수식에는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렌과 그의 세 자녀가 참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F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정동희
편 집 국 장	이 춘
광고국장 직대	김완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853-2180
독 자 센 터	(02)721-9802

"금세기 흡연 사망자 10억 넘을 수도"

각국 정부가 담배 규제를 머뭇거리는 사이에 금세기 10억 명을 넘는 사람들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암학회(ACS) 회장인 존 서프린 박사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경고했다.

서프린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암 사망 요인에서 흡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2%로 연간 17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국명기자

OK CASHBAG

KB국민카드

OK CASHBAG 1000포인트 페스티벌

KB국민카드로
1000포인트 받고
포인트 두배 쌓고

1000포인트 페스티벌과 함께하는

OK캐쉬백과 KB국민카드 포인트리 포인트통합 Event!

1. 포인트 통합 사용 동의 ➡ OK캐쉬백 1000포인트 증정
2. OK CASHBAG 로고가 있는 KB국민카드 결제 ➡ 기본 포인트 X 2 적립

Event 1 1000포인트 증정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OK캐쉬백과 KB국민 포인트리 통합 사용에 동의한 모든 고객에게 OK캐쉬백 1000포인트를 드립니다.(행사종료 후 10일 이내 적립)

Event 2 포인트 더블 적립

OK캐쉬백 1000포인트 행사 참여 제휴사에서 OK CASHBAG 로고가 있는 KB국민카드로 결제하신 고객은 포인트를 두배로 적립해드립니다 (VIPS 위정 출어 롯드로파크 제외)

OK CASHBAG 1000 포인트 페스티벌

OK캐쉬백 1000포인트만 있으면

KFC, 버거킹, ABC마트, 스피드메이트 11번가, VIPS, ... 도미노 피자, KB국민카드, ...에서 즐거운 혜택이 쏟아진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okcashbag.com)를 참조 하세요.
(10월15일부터 ~ 11월14일까지 / 제휴사별 상이)

http://okcashbag.com

OK캐쉬백 포인트가 부족하시다구요?

OK캐쉬백을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는 Touch와
OK체크인 APP을 받고
카드 등록만 해도 100% OK캐쉬백
포인트를 드립니다

앱 스토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OK캐쉬백'과 'OK체크인'을 검색

metro global

전 세계 22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anada

Say Boo! ...boring costumes
Value Village

metro Mexico

enden in fraganti
par de senadoras

여성의원, 국회서 남친과 밀회 '들통'

메트로 멕시코는 국회 노동개혁 심의 중에 국민행동당 여성 국회의원 마리아나 고메스델캄포가 국회의사당 건물 발코니에서 애인과 키스하는 장면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됐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소정당인 시민행동당 여성 국회의원 라이다 산소레스 의원도 고객리처디 취석(?)이 됐다. 국회 회의 중 의석에서 아이패드로 쇼핑하거나 다이아몬드 반지 낀 손을 자랑하는 동영상이 트위터로 퍼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멕시코 네티즌들은 "국회에서 게임이나 하며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metro HongKong

英語水平大跌

홍콩인 영어실력 한국인에게 추월

홍콩인의 영어 수준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설 영어교육기관인 EF 잉글리시타운이 25일 발표한 '영어능력지수'에 따르면 홍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54개 국가 및 지역 가운데 중간 수준인 25위를 기록했다. 주변 경쟁국인 싱가포르, 한국, 일본보다 낮은 등수다. 홍콩대 교육학부의 잠즈펀 교수는 "예전에는 사람들이 영어로 회화를 했는데 이제는 광둥어 더빙이 안 돼 있으면 보질 않는다"며 홍콩 사람들이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는 좋은 환경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etro France

프랑스 군인 봉급 1년간 적게 지급

1년여 전부터 프랑스 일부 군인들이 봉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군인 부인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 알려져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새로운 봉급 지불 시스템인 '루부아'의 버그로 인해 13만 명의 봉급 명세서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최근 시인했다. 승진을 했거나 이사를 한 경우 수당지급에 오류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300유로(약 43만원)의 말도 안 되게 적은 봉급을 받거나 5만 유로(약 7080만원)의 엄청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12만9000명의 봉급 오류는 이미 해결했다고 밝혔다. 장 이브 르 드리앙 국방부 장관은 "한 점의 의심거리도 남겨두지 않고 봉급 오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하사관은 "기존보다 690유로나 적은 월급을 받다보니 저금을 깬 것은 물론 어휘(?)기도 다녀오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블로그 '은밀한 분신' 운영자인 디오게네스는 "시기 없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이 실형을 받게 된다"고 거칠게 항의했다.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처음 폭로한 군인 부인들도 국방부를 항의 방문했다.

군인권리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인 미셸 바부알은 이 시간에 대해 "군대에는 노조가 없고, 부하들이 뭔가 건의할 경우 상관들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드러나는 데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정리=서믿음 기자·번역=이국명 기자

핼러윈 파티도 싸이 독무대?

복고풍 양복+반짝이 재킷+선글라스 '강남스타일 패션' 캐나다 최고 인기 아이템 부상

올해 핼러윈 데이엔 어떤 옷을 입을까? 31일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니뭐니해도 의상. 특히 올해는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언급돼 화제가 된 노란 새 '빅버드'와 한국 인기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패션이 새로운 인기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개성만점 핼러윈 의상들을 살펴봤다.

/정리 배현 기자·번역=조선학 기자

◆ 깜찍발랄 '핫도그'로 변신

아이들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생 등 연령대별로 핼러윈 의상이 다양하다. 유치원 꼬마들에겐 강아지, 고양이, 토끼, 꿀벌 등 동물과 곤충의 모습을 본떠 만든 귀여운 의상이 잘 어울린다. 커다란 빵 속에 소시지가 들어있는 '핫도그' 옷이나 소방관 의상과 모자도 깜찍하다.

◆ 유령·마녀 빠지면 섭섭해

핼러윈 데이 드레스코드는 누가 뭐래도 귀신과 마녀. 10월의 마지막 밤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랑켄슈타인과 유령, 뾰족한 모자를 눌러쓴 마녀와 고블린(서양의 동화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키 작은 괴물)이 빠지면 섭섭하다.

◆ 강남스타일 패션 따라잡기

흥겨운 말춤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한국 가수 싸이. 그의 '강남스타일' 패션이 핼러윈 최고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상점에서 복고풍 양복과 반짝이 재킷, 선글라스 등을 찾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띈다.

◆ 미 대선토론회 깜짝 스타 '빅버드'

미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언급해 화제가 된 '빅버드'. 롬니는 토론 도중 "나도 빅버드(PBS의 유아 프로그램에 나오는 캐릭터)를 좋아하지만 PBS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올해 핼러윈 파티 곳곳에선 대선 토론회의 깜짝 스타 '빅버드'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 매혹적인 '꽃미남' 뱀파이어

창백한 피부에 붉은 입술, 날카로운 송곳니. 영화 '트와일라잇'이 10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뱀파이어 복장도 인기다. 깊어가는 가을밤 꽃미남 뱀파이어들이 핼러윈 파티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러 명문영화사 할리우드와 제휴
- 원자바오-NYT 누구 말이 맞나
- 천주교 사제가 女화장실에 몰카

50세	60세	70세
월7,570원	월12,600원	월41,810원

(남자, 1만원 기준)

30세	40세	50세
월11,000원	월18,160원	월36,220원

(남자, 1만원 기준)

치매 간병비 5천만원을 한꺼번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한)

암 진단비 2천만원을 진단 즉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차티스 명품치매보험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중증치매간병비 5천만원 (최초 1회한)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확정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부가서비스·간병 도우미 1회 3만원 (연 5회)
치매담보 가입자가 중증 치매로 확진되어 치매간병인 사용하는 경우

7대 질병 수술비 50만원 지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차티스 큰병이기는보험IV

기본계약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5백만원 한도 (Active 보험금)
약관에 정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으로 진단 확정시 약관상 지급률에 따라 지급

선택계약 암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가입후 91일부터 보장하며 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은 보장금액의 20%지급

뇌졸중(뇌경색, 뇌내출혈)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2천만원 (최초 1회한)

7대 질병 수술비 5백만원
7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1644-9265

월보험료 (1년,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중증치매간병비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50~86세	8,270		50세	1,110	2,960	180	90
			60세	6,010	14,270	320	190
			70세	35,040	71,220	500	370

3년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 절차없이 최대 90세까지 (7대 질병 수술비는 80세까지) 연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577-6429

월보험료 (1년, 단위: 원)

기본계약			선택계약								
Active 보험금			암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7대 질병 수술비	
연령	남자	여자	연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66세	8,270		30세	2,280	7,030	1,200	520	750	270	590	250
			40세	6,780	17,570	2,730	1,180	1,380	530	1,000	420
			50세	17,180	21,380	8,670	6,410	2,280	880	1,910	960

3년 만기 재가입특약 상품으로 매 만기 종료일 전까지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별도의 청약절차 없이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CHANGE RATE	
달러	1095.50
엔(100)	1376.08
유로	1412.98
위안	175.63

3040 자산가 '씁쓸한 이력'

CEO스코어 상위 50인 분석…재벌 후손이 80%

국내 30~40대 유력 자산가 가운데 자수성가 비율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경영분석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30~40대 자산가 50명의 자산내역과 업종 등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스스로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의 수는 전체의 18%인 9명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나머지 39명은 대부분 재벌 2세나 3~4세였다.

자산액수로 본 랭킹에서도 1위부터 6위까지를 이 재벌 후손들이 독점했다.

주식과 보유자산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43)으로 자산총액이 3조5000억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45)은 2조4230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다음은 현대백화점그룹의 정지선 회장(41·8382억원)과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부회장(45·7209억원) 순이었다.

창업자산가 중 선두는 NHN의 이해진 이사회 의장(46)이 차지했다. 이 의장은 총 자산액이 5733억원으로 X세대 50대자산가 랭킹에서는 6위였지만 창업자 중에서는 가장 랭킹이 높았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박관호 대표(41)와 엔씨소프트의 김택진 대표(46)는 자산액이 4731억원과 4671억원으로 창업자 중 2·3위를 차지했다. /박상훈기자

세계 최초 보행자용 에어백 나왔다

볼보 신형 V40 장착 차 전방 충돌 감지땐 앞유리서 ㄷ자 팽창

안전의 대명사 볼보차가 세계 최초로 보행자용 에어백을 시판 중 차량에 탑재했다.

볼보코리아는 29일 5도어 해치백 V40에 보행자 에어백을 장착했다고 밝혔다. 전방에 탑재된 7개의 센서가 보행자 충돌을 감지하는 즉시 보닛을 들어 올려 충격을 흡수하고 동시에 앞 유리창 밑 부분과 양쪽 A필러를 감싼 ㄷ자 형태의 에어백이 팽창한다.

볼보는 1959년 3점식 안전벨트, 94년 사이드 에어백, 98년 커튼형 에어백 등을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김철호 볼보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차세대 에어백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에어백 기술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zan@metroseoul.co.kr

감쪽같이 사라진 계열사

그룹들 올해 합병공시 27건…불황타개 일환 지난해의 2배 넘어

기업들이 계열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불황 타개를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10월 들어 지난 26일까지 '회사합병 결정' 공시(자회사 공시 포함) 건수가 27건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15건, 코스닥시장 공시 1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병 공시는 12건(유가 7건·코스닥 5건)이었다. 올해 들어 2배 넘게 증가했다.

기업들의 공식적인 합병 결정 배경은 '사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사업 간 시너지 제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실례로 지난 18일 롯데쇼핑은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했다. 김경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롯데쇼핑은 롯데미도파의 연 500억원에 달하는 영업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비율의 영향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비용 절감이 합병의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2일 네오위즈게임즈는 계열사인 네오위즈인터넷을 흡수합병했다. 업계서는 크로스파이어 및 피파온라인2의 재계약 문제 등으로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의 매출 하락이 우려되자 네오위즈게임즈가 모바일 게임 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시 흡수합병 공시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기획정책실 연구위원은 "기업 합병은 생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측면과 성장 가속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며 "합병 비용과 기업 재무상황을 꼼꼼히 살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성기자 lazyhand@

중소제조업 가동률 2개월 연속 상승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건설업의 계절적 성수기와 자동차 부문의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가동률은 일반적으로 경기 전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133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9월 평균 가동률 조사' 결과를 보면 전월(70.8%)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71.4%로 상승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수가 부진하고 IT 부문의 해외 수요가 감소했지만, 건설업의 계절적 성수기였고 자동차 부문의 해외 수요가 증가해 가동률이 소폭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7%→65.8%)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으며 중기업(75.3%→75.0%)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71.4%→73.9%), 비금속광물제품(67.5%→69.7%), 섬유제품(70.9%→72.5%) 등 14개 업종이 상승했다. /김지성기자

USB 들고 뛸 필요없이 무선출력

메트로와 HP가 함께하는 스마트오피스 캠페인 ②

"복합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HP 오피스젯 8600 플러스 e복합기 덕분에 스마트 오피스 에서 일해요."

젊음의 거리, 홍대의 구석구석에는 꿈을 키워가는 청춘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이 젊음의 거리 한편에서 이제 창업 6개월 차에 접어드는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 회사 '프로젝트 에디(Project Eddy)'를 만났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로 업무를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이들. 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오피스 한가운데에 놓인 HP 오피스젯 8600 플러스 e복합기다.

프로젝트 에디의 대표 이지윤씨는 '메트로와 HP가 함께하는 스마트오피스 이벤트'에 직접 시연을 신청했다.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브랜드 컨설팅을 돕자는 좋은 취지로 친구들과 뜻을 모아 프로젝트 에디를 만들었는데, 그들 앞에 놓인 시소한 걸림돌 하나가 번번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 무심코 헐값에 들여놓은 복합기 한 대가 문제였다.

"디자인 회사다 보니 출력할 것도 많고 팩스, 복사, 스캔까지 복합기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시안도 출력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 주고받을 문서도 상당하고요. 그런데 막상 작업을 잘 하고 나서도 복합기가 말썽을 부리니 답답한 경우가 많았죠."

기존에는 무선 연결이 되지 않는 제품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리다 보니 프린트할 때마다 USB 선을 찾아야 하는 등 불편했다. 낭비되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단 돈 몇 만원 아끼지고 구매한 저가 프린터 때문에 손해가 컸다.

'HP오피스젯 8600 플러스 e복합기' 들여놓은 홍대앞 디자인회사 "업무가 스마트해졌죠"

"HP 오피스젯 8600 플러스 e복합기는 무선 환경이 구축된 곳에서는 USB 연결선 없어도 쉽게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프린터 연결선이 사라지니까 사무실이 한결 깔끔해져 일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또 PC 외에도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한 출력이 가능해 굳이 모든 문서를 컴퓨터로 옮겨서 출력할 필요가 없어졌다. 외근 시에는 프린터 고유 메일 계정으로 메일 하나만 보내면 출력할 수 있다. 팩스 문서를 바로 PC로 전송해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메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여기에 분당 최대 20페이지의 컬러 출력을 지원하는 빠른 인쇄 속도까지 더해지니 업무 능률이 올랐다.

이지윤씨는 출력 품질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았다. "HP 정품잉크를 사용해 보니 왜 정품잉크 사용을 강조하는지 확 와 닿아요. HP 정품잉크는 저희가 의도한 컬러를 무척 잘 구현해내기 때문에 출력 전과 후의 느낌이 다를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죠."

단지 프린터의 USB 연결선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프로젝트 에디는 HP 오피스젯 8600 플러스 e복합기를 통해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했다.

"그냥 복합기 하나를 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오피스를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컴퓨터로, 또 스마트기기로 자유자재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특권이에요." /김서님기자

터치로 껐다켰다 태블릿 따로 없네

소니 바이오 노트북에 탑재된 '윈도8' 써보니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주 출시한 윈도8은 한마디로 20년 만에 새로 태어난 OS(운용 시스템)다.

소니의 새 노트북 '바이오 듀오'의 전원을 켰다. 기존의 조그만 아이콘 대신 빨강·노랑·파랑의 타일이 첫 화면에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가 봐도 작동할 수 있도록 e메일, 음악 감상, 게임, 인터넷 서핑, 사진 작업 등을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림을 각 타일마다 새겨 넣었다.

화면 크기를 두 손가락으로 조절할 수 있고 손가락을 액정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화면 역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스마트폰 UI와 같다고 보면 된다. 화면 끝부분을 중앙 쪽으로 끌어당기면 검색, 시작,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막대가 등장한다. 함께 제공하는 펜을 이용해서 손가락과 동일한 방식으로 노트북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사진이나 문서의 일부분을 그대로 복사해 옮길 수도 있다.

'나는 쓰던 게 좋다'는 유저를 위해 기존 데스크탑 버전처럼 화면 좌측에 세로로 아이콘을 하나씩 배치하는 기능도 있다. 윈도의 상징인 창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한마디로 윈도8은 쓰기 쉽고 편하다. 다만 1만 개 수준에 그치는 앱 생태계가 경쟁사에 비하면 여전히 약소하다.

소니코리아는 29일 윈도8을 적용한 바이오 노트북 신모델을 대거 공개했다. 이 가운데 태블릿과 노트북의 중간 형태인 '바이오 듀오'의 경우 멀티 터치 화면과 스타일러스 펜을 탑재해 키보드, 태블릿, 펜 모드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지원한다. /소니코리아 제공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아이폰5·아이패드 미니 국내 출시 늦어져

아이폰5와 아이패드 미니의 국내 출시일이 늦춰질 전망이다. 두 제품 모두 전파인증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5는 세 번째로 전파인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미 두 차례 인증을 받았으나 국내에 최적화된 통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전파 인증을 받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빨라도 다음 달 중순 이후에 아이폰5를 쓸 수 있게 됐다.

아이패드 미니는 현재 전파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로 당초 출시 예정일인 다음 달 2일에 맞춰서 나오기는 힘들 가능성이 있다. /박성훈기자

지구에 랜드마크 짓는 '첨단건설 한국'

한국 경제의 주역 건설산업 65주년 특집 기획 시리즈

<1> 건설사, 하이테크 기술로 국내외 불황 뚫는다
<2> 해외건설 5000억 달러 달성.. 건설한류 시대 활짝
<3> 건설산업 친환경 에너지경영 확산
<4>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설산업

건설산업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해방 이후 지금까지 65년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건설산업 65주년을 맞이해 국가경제에 기여한 건설산업에 대해 재조명하고, 미래의 건설산업에 대해 조망하는 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싣는다.

건설사마다 R&D연구소 갖추고 최고 공법 경쟁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중심에는 건설산업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중심에 선 건설업은 현재도 중요한 내수산업이자 전략 수출업종이다. 건설투자가 국내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농림·어업의 2배에 달한다. 최근 건설업은 침체된 시장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R&D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노가다 이미지 벗고 하이테크 건설로 변모

과거 토목 중심의 건설시장이 신규 플랜트 기술, 로봇공법, 신재생에너지 공법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하이엔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최첨단 산업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은 해상구간 길이만 12㎞가 넘는 국내 최장의 인천대교 건설과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인 두바이 부르즈칼리파, 국내 경사주탑 사장교 가운데 최고 높이를 자랑하는 공촌1교, 다양한 최첨단 건설공법을 필요로 하는 유류 비축기지 공사 등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큼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게 됐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플랜트·건축분만 아니라 교량분야에서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기술개발 및 연구를 통해 준공시킨 공촌1교 전경. 주탑 높이가 106m로 국내 경사주탑 사장교 중 최고 높이를 자랑한다.

◆R&D 투자 늘리며 신규 사업 분야 개척 나서

현재 건설사들은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불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현적 경쟁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사업 분야까지 개척하며 불황시대에 고부가가치 건설시장을 겨냥,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R&D 투자액은 2002년 3608억원이던 것이 2010년 8495억원으로 2.36배가량 늘었다.

현대건설, 쌍용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롯데건설 등은 80년대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이미 운영중이다. 최근에는 중소 건설기업들의 R&D 투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도 건설분야 R&D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세계 하이테크 건설시장의 선두진영을 차지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건설업은 지금까지 지구 두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약 10만㎞)의 도로를 개통하고, 해외건설 5000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건설불황 시대를 R&D 기술 투자로 뚫고 있는 건설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변신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성기자 [email]@metroseoul.co.kr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캄보디아 최고훈장 수훈

부영그룹 이중근(오른쪽) 회장은 26일 캄보디아 프놈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부영크메르 대권도센터' 기증·준공식에서 속 안 캄보디아 부총리로부터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에 주는 최고 훈장인 '대십자 훈장'을 수상했다. /김지성기자

아프로FG, 몽골국립대와 자매결연

장학금 지급 MOU 체결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유명한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이 출연한 (재)아프로아프지장학회'가 최근 몽골 국립대학교와 자매결연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이어 최윤 이사장과 장학회 임원, 몽골국립대 [illegible] 부총장 등이 참석 [illegible] 수학생 1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김지성기자

"주택크기 25평보다 35평 대세될 것"

현재 보급된 주택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5~30평형의 비중은 2035년까지 크게 감소하는 반면 30~35평형은 보다 일반적인 주거면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9일 2012 한국노동패널 워크숍에서 김준형(대구대 도시지역계획학) 교수가 소득, 가구 구성원 숫자 변화 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다.

김 교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예외 없이 25~30평형 주택의 비중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0평형 이상의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여파로 가구 구성원 숫자는 줄어들지만 소득 증가 등으로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이 보편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15평형 미만 규모의 주택 수요도 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지성기자

1등 인터넷 서점
인터파크 도서
주간 베스트셀러

1위 2위 3위 4위 5위

인터파크 이 주의 추천 도서

우리 시대 화이트칼라의 쓸쓸한 초상

희망의 배신 바바라 에런라이크/부키

최근 자영업자의 절반이 창업 3년 안에 망한다는 뉴스가 회자가 됐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정리 해고되거나 명예 퇴직한 발급쟁이일 터. 사회생활 커녕 먹고살 작은 치킨집 하나 꾸리기도 어려운 팍팍한 시대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미국도 다를 바 없는 모양이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홍보 분야의 구직자로 위장한다. 그러나 취업 길라잡이인 코치와 구인업체는 돈만 뜯어갈 뿐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이 강조하는 건 능력과 경력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쾌활하고 순응하는 태도다. 저자는 시키는 대로 이력서를 고치고, 화장법을 바꾸고 고분고분 행동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회사 안에 남아 있는 '생존자'가 나은 것도 아니다. 주말도 사생활도 없이 회사에 무한 충성을 바쳐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게 이들 좋은 사무직의 현실이니까.

출간 후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조합 조직이 자발적으로 생길 만큼 큰 호응을 얻은 '희망의 배신'은 바버라 에런라이크의 '배신 시리즈'의 3부 완결편이다. 1부 '긍정의 배신'은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한 긍정주의를, 2부 '노동의 배신'은 불성실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워킹 푸어의 실상을 고발한다. 저자는 이 세 권의 현장 체험 르포에서 새 밀레니엄의 첫 10년간 극단적인 경쟁과 시장주의로 불린 우리가 무엇에 복을 했고 결국 배신당했는지를 추적해 '뉴욕타임스'로부터 "자본주의의 이면을 파헤치는 최고의 책가"라는 찬사를 받았다.

화제의 신간

삼성 컨스피러시
김진명/새움

외국 투기자본의 거대 음모, 그리고 사라진 천재를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그 거대한 음모를 밝히는 김진명의 처절하도록 끈질긴 추리가 펼쳐진다. 작품은 2002년에 출간된 '바이 코리아'의 전면 개정판으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음해세력을 끈질기게 파헤친다.

창비 세계문학전집 세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외/창비

세계문학의 새로운 기준이 될 창비 세계문학이 출간되었다.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를 시작으로 7개 언어권 10종의 고전을 1차분으로 엄선하여 내놓은 것. 작품해설과 작가연보를 작품마다 배치해 작품의 이해를 돕고, 국내 독자에게 생소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작품 외 읽을거리를 부록으로 더한 것이 특징이다.

선택의 조건
한국경제신문사/바스 카스트

풍요로운 사회에 살면서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책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로 인해 딜레마에 빠지는, 날을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미미 와 있는 복권인 '행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의 지혜를 전한다.

속 시원한 만남

'청춘에서 어른에게로'
김난도가 건네는 위로

'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출간을 기념해 세상에 첫발을 내딛던 어른아이에게, 대한민국이 공감한 청춘멘토 김난도의 특별한 강연을 선물한다.

일시 11월 5일(월) 저녁 7시 30분
장소 계룡타워 3층 학습홀

비스킷 신간(eBook)

미스터 개씨
임은정/문화구창작 團

'미스터 개씨'는 '당자의 지극히 개 같은 승진 이야기'라는 다소 도발적인 부제를 달고 있다. 평범한 직장 여성과 그녀의 동갑내기 남편 그리고 강아지까지 셋이 펼치는 위자지걸 이야기가 유쾌하게 서술되었다.

행복도 선택이다
이민규 / 더난출판

실행이 답이다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등 출처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민규 교수가 이제 인간관계와 성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에 대해 들려준다.

이 주의 특가 도서

시크릿 롬 다번/살림biz

50%

국내에서 300만 부 전 세계 3억 부 이상 팔린 바로 그 책! 책에서는 수세기 동안 1% 사람들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비밀을 알려준다.

판매가 12000→6000원 (50% 할인)

얼려라, 클래식 이헌석/돋을새김

50%

'얼려라, 클래식'은 클래식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로, 400여 장의 음반 소개와 친절한 해설로 당신을 클래식 마니아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판매가 18000→9000원 (50% 할인)

9년 만에 '재가입률 1위 보험' 우뚝

이번주 채용기업

The-K 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종합 손해보험사인 더케이손해보험 에듀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자산 21조원)가 100% 출자해 설립됐다.

인정된 경영기반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교육계 시장 점유율 60%로 1위, 재가입률 84%로 업계 1위 등 9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성공을 기반으로 2008년 The-K 손해보험으로 CI(사명)를 변경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보험에 이르는 토털 보험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더케이손해보험은 미래를 함께할 열정 있는 2012년 대졸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 중이다.

모집 부문은 경영기획, 영업기획, 콜센터 지원, 법인영업지원, 법인영업실무, 일반보험업무, 자동차업무 등이다. 지원자는 더케이손해보험 홈페이지(www.educar.co.kr)를 통해 온라인 지원할 수 있다.

/커리어 제공

'버터영어' 아니어도 OK

영어면접 한국식 발음이라도 정확하게… 달달 외운 영어는 안 통해

취업준비자들의 가장 큰 '공포증' 하나가 바로 영어면접이다.

자기소개 정도에만 그쳤던 기존과는 달리 프레젠테이션, 집단토론 등으로 영어면접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준비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도움을 받아 영어면접 완전정복법을 알아본다.

◆영어면접도 기초부터=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큰 사람이라면 기본 회화부터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급하게 면접영어를 공부했다가는 오히려 면접 당일 실수를 범하기 십상이다. 기본회화를 통해 영어의 흐름을 읽고 문장유형(패턴)을 외워둔다면 면접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

◆한국식 발음이라도 씩씩하게='발음은 영국식이 좋은가요, 미국식이 좋은가요?'를 묻는 구직자들이 많다. 하지만 한국식 발음이라도 의미만 통하면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 너무 복잡하고 수준 높은 문장력을 구사하기보다는 간결하면서도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답형 대답은 그만=영어에 자신이 없다고 우물쭈물하거나 한국어를 사용해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면접관 등의 질문에 'Yes', 'I agree'와 같이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더라도 핵심 범위 안에서 소신껏 답변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스러운 몸짓은 필수=영어문화권의 사고방식이나 습관, 에티켓 등도 미리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장하면서 활기차게 'Nice weather'와 같은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문장을 구사한다면 면접관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다만 도가 지나친 행동은 경박해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주간 채용캘린더

30(화)	* 디나미 * 한국증권금융 신입
31(수)	* 오리온(신입) * 한국토존협회
1(목)	* 한국가스기술공사(신입)
2(금)	* 한국허우튼 * 호텔아이파크
3(토)	* 대림씨엔에스 * 두산엔진(경력)
4(일)	* 현대종합금속(경력)
5(월)	* 신도리코 * 그린중전기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증권사 채용
2위 외국계인턴십
3위 취업박람회
4위 교직원채용
5위 토익 청취점수

*10월 23~29일 인기검색순위

분당서울대병원 건강강좌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오늘(30일) 오후 2시 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치매에는 대비가 답'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연다.

치매환자의 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강좌는 ▲치매환자의 입원 치료(효자병원 한일우 원장) ▲치매환자의 약물 치료(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장은 교수) ▲치매환자의 약물 이외의 치료 방법(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 ▲음악치료(조혜령 강사) ▲댄스치료(김예지 강사)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031)787-1129

중앙대병원 아토피염 강좌

중앙대학교병원이 내일(31일) 오후 2시부터 병원 중앙관 4층 동교홀에서 '아토피피부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아토피피부염 바로 알기(중앙대병원 피부과 박귀영 교수)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서울시의료원 아토피-천식센터 임상심리사) ▲아토피피부염의 영양 교육(서울시의료원 아토피-천식센터 영양사) ▲아토피피부염 목욕 및 보습법(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 교육 간호사) 등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문의 02)6299-1525~6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

지구촌가정훈련원, 관절염 말기 노인 치료 지원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희망'

완연한 가을. 쌀쌀해진 날씨가 뜨끈한 온돌방을 생각나게 한다.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온돌방, 좌식생활이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식 문화로 인해 60세 이상 인구의 80%가 겪게 되는 만성질환이 있다. 바로 퇴행성관절염이다. 퇴행성관절염은 무릎과 무릎 사이 연골이 닳아 뼈가 부딪히는 질환을 말한다. 연골이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퇴행성관절염 초·중기 단계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는 퇴행성관절염 말기로 발전된다.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 사이가 완전히 달라붙은 말기의 경우엔 통증이 심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약물이나 주사치료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유일한 치료법은 닳아버린 무릎 관절을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다.

(사)지구촌가정훈련원은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지구촌가정훈련원으로 신청자의 증상과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지구촌가정훈련원 이희범(작은 사진) 원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 터를 이루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고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며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을 주최하는 지구촌가정훈련원은 1993년, 행복의 첫째 조건인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문의 031)897-0094 /정민 기자

■ 인공관절치환술이란

퇴행성관절염은 60세 이상 노인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다. 하지만 말기로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조차 제한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다리가 O자 형태로 휘게 되기도 하며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진다.

약물이나 주사 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 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다. 통증을 경감시키고 운동범위를 확보해 통증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집안 환기 자주… 보조흡입기 상비

환절기 더 심해지는 '소아천식' 치료·관리법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심한 일교차와 차고 건조한 바람으로 많은 아이들이 천식을 앓게 된다.

소아천식은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 하나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는 급성 천식 증상의 완화를 위한 증상 완화제와 증상이 없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투여해 기도 염증을 경감시켜주는 조절제로 나눌 수 있다.

천식의 관리는 적절한 약물 사용과 함께 자극을 주는 원인을 제거해 기도를 자극하지 못하게 한다. 천식의 원인이 되는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도록 베개와 침구는 자주 세탁하고, 잦은 환기를 통해 환경을 깨끗이 유지해 준다.

아이가 천식 발작을 일으킬 경우 아이를 똑바로 앉히고, 즉시 보조흡입기를 통해 완화약물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도록 한다. 4분간 기다린 후 개선되지 않으면 약물을 다시 들이마시는 것을 반복한다.

인하대병원 염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알레르기 환경보건센터 연구팀장)은 "증상이 발현됐을 때만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약물 치료와 적절한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며 "평소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로 천식을 조절함으로써 천식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처 기자

이대병원 '뇌졸중 전문 치료실' 인증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가 '뇌졸중 전문 치료실'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뇌졸중학회가 주관하는 '뇌졸중 전문 치료실 설립 지원 및 인증사업'의 일환인 이번 인증 기간은 오는 2015년 8월까지 3년간이다.

뇌졸중 전문 치료실 인증 제도는 대한뇌졸중학회가 뇌졸중 전문 치료실의 시설과 장비 운영, 인력 현황, 환자 보호자 교육, 협진 술기 현황 등 뇌졸중 관련 전 치료과정에 대한 엄격한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전문적인 진료가 이뤄지는 경우 인증하는 사업이다.

김용재(사진) 뇌졸중센터장은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뇌졸중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아 랩핑버스' 찾아라! 칼슘필러 래디어스 이벤트

오리지널 칼슘필러 래디어스가 버스 전체에 브랜드의 콘셉트와 모델 이미지를 담은 '래디어스 홍수아 랩핑버스'를 운행하고, 랩핑버스 사진을 찍어 참여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래디어스로 경험하는 '3D 하트 이펙트'라는 래디어스 대표 타이틀과 모델 홍수아의 얼굴이 버스 전면에 프린트된 랩핑버스가 서울 및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래디어스를 홍보하는 게릴라성 이벤트다.

온라인에서도 '래디어스 홍수아 버스 목격담' 이벤트를 진행, 랩핑버스 사진을 찍어 개인 SNS에 업로드하고 래디어스 블로그(merzkorea.blog.me)나 페이스북(facebook.com/merz.korea)에 링크를 남긴 참여자 중 2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커스텀 하트 자전거를 증정한다.

/김민지 기자

눈 건강 캠페인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서클렌즈를 숨쉬게 하라!

요즘에는 서클렌즈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과 학생층뿐만 아니라 20~30대 일반 여성들, 남성들도 서클렌즈를 착용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착용자들이 서클렌즈를 의료기기가 아닌 단순한 미용도구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산소투과율 높은 것 선택
권장 착용주기 안 넘겨야

환자들에게 서클렌즈를 선택할 때 무엇을 살펴보냐고 물으면 렌즈의 색깔이나 색상이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온다. 서클렌즈에도 건강한 선택 기준이 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산소투과율이다. 산소투과율이 낮으면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충혈, 불편한 착용감 등의 원인이 된다. 서클렌즈의 색소가 들어 있는 부분도 일반 투명렌즈와 같은 수준의 높은 산소투과율을 가져야 이 같은 증상을 피할 수 있는데 하루 일과시간 동안 착용할 때 산소투과율은 24(Dk/t) 정도가 되는 제품이 눈 건강에 좋다.

또 서클렌즈의 착색된 부분은 눈에 직접 닿지 않아야 안전하다. 이 부분이 렌즈 안쪽에 있어 각막에 직접 닿으면 눈을 자극해 안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겉면에 프린트돼 있으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마찰이 생겨 착용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색소층이 렌즈 재질에 싸여 가운데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서클렌즈의 선택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다. 서클렌즈의 부작용은 제품 자체보다는 착용 관리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권장 착용주기를 넘겨 사용하는 것은 눈 건강에 좋지 않다. 서클렌즈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한 제품 선택과 건강한 착용습관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주천기 교수(서울성모병원 안센터장)

1000만판 '피자 금자탑'

Pizza Hut 쫄깃·담백 '더스페셜 피자' 2판 2만5000원 특가 행사

군침 도는 먹거리의 유혹이 거센 가을, 한국 피자헛이 '더스페셜 피자'로 인기몰이하면서도 푸짐하게 즐길 기회를 준비했다.

더스페셜 피자는 출시 2년 반 만인 지난달 1000만 판 판매를 돌파한 스타 피자다. 밀리언셀러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피자헛은 골든 포테이토, 크리치킨, 쏘핫치킨, 까망베르, 텐더 비프 등 5가지 더스페셜 피자 가운데 취향대로 고른 2판을 2만5000원에 판매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은 물론 전화 주문과 피자헛 레스토랑 매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편리다.

피자헛 마케팅팀 조윤상 이사는 "쫄깃 담백한 맛과 합리적인 가격의 더스페셜 피자가 여성 고객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2010년 출시 이후 업계 첫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며 "고객 감사 차원에서 마련한 특가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더스페셜 피자를 다양하고 알뜰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쫄깃한 힐도우에 토핑 듬뿍 - 입맛 따라 즐긴다

더스페셜 피자의 인기 비결은 크게 '쫄깃한 식감'과 '담백한 맛'으로 꼽힌다.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쫄깃한 식감을 고려하면서도 최근의 트렌드인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1000만 판이나 팔려나갔다.

피자헛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힐도우를 사용해 씹을수록 쫄깃하고 속은 부드러워 빵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여기에 힐도우와 잘 어우러지는 고급스러운 메인 재료를 얹어 씹을수록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고소한 웨지감자와 체다치즈를 더한 매시포테이토를 토핑으로 올린 '골든 포테이토'는 부드러운 감자의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두루 좋아한다.

훈제 닭가슴살과 버섯 토핑이 크림소스와 어우러져 진하고 부드러운 '크림치킨'과 통째로 올려진 까망베르 치즈의 깊은 맛이 일품인 '까망베르'는 여성 고객들이 특히 선호하는 메뉴. 매콤한 닭다리살과 구운 마늘이 어우러져 질리지 않고 개운한 '쏘핫치킨'과 프리미엄 비프와 야채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텐더비프'를 찾는 이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효순기자

친환경포장의 '녹색 사슬' 눈길

테트라팩 등 3개 기업
'저탄소 …'에 공동 부스

테트라팩·굿펠코리아·부림제지가 '녹색 기업, 녹색 제품'이란 주제로 연합 부스를 구성, '2012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30일~11월 2일·코엑스)에 참가한다.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부스를 만들어 친환경 제품을 전시하고 환경 관련 체험 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테트라팩은 세계적인 식음료 전처리 및 포장기술 선도기업으로 지난해 포장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 굿펠코리아는 친환경 연필과 볼펜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부림제지는 국내 최초로 재생화장지에 대한 녹색인증을 해 '그린Q마크'를 획득했다.

세 회사의 연합 부스에서는 친환경적인 종이 제조 과정부터 종이의 생산, 유통, 종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녹색 가치사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된다.

네잎클로버 화분으로
수능생에 행운 선물을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오늘(30일)부터 수능 선물용 네잎클로버 화분을 업계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클로버를 힘들게 찾을 필요가 없다. 화분에는 세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가 8대 2 비율로 자란다. 유전자변이를 통해 잎이 네 개 달린 클로버가 함께 자라도록 한 퀵엽클로버종을 사용했다. 화분 가격은 7000원.

한손에 감싼 S라인 "음~ 예술"

수퍼프리미엄 위스키
'윈저21' 7년만에 변신

손안에 착 달라붙는 그립감이 묵직하고 부드럽다. 은은한 S자 곡선이 정면에 새겨져 있어 병을 들기가 편해졌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 26일 공개한 수퍼프리미엄 위스키 '윈저21'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출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인 리뉴얼을 단행한 것으로 21년산 위스키를 즐기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고급화했다.

외부 디자인은 바뀌었지만 내용물은 그대로다. 달콤함과 부드러움이 균형을 이룬 윈저21은 세계 3대 주류 품평회인 2012 IWS C(International Wine and Spirit Competition 2012) 딜럭스 블렌드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명주로 평가받고 있다. 윈저21의 출고가는 기존과 같으며 500㎖이 7만7770원.

최근 위스키 시장은 위기를 맞고 있어 디아지오의 움직임을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불황에다 순한 술을 찾는 주류 문화의 변화가 겹쳐 위스키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13% 이상 줄어든 상태다.

디아지오 측은 '이노베이션(혁신)'으로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디아지오코리아 벤 팔로우(사진) 마케팅 상무는 "위스키 시장이 계속 힘든 상황이지만 윈저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윈저 21의 디자인 리뉴얼처럼 브랜드 고급화에 집중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디아지오는 이노베이션팀을 구축, 여성과 젊은층 등 새로운 소비자층 발굴에 힘을 모은다. 이를 위해 국내 출시되지 않은 브랜드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조선-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ACUVUE®
BRAND CONTACT LENSES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서클렌즈의 건강한 기준, 원데이 아큐브 디파인®

친환경소비로 '에코머니' 부자되세요

테트라팩이 알려주는 녹색소비 실천방법

불황이라지만 잘 팔리는 제품은 여전히 인기다. 바로 천연 성분 화장품, 유기농 재료로 만든 식음료 제품들이 대표적이다. 최근엔 원료뿐 아니라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발자국을 줄인 제품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한 올라가고 있다.

세계적인 식음료 전처리 및 포장 기업인 테트라팩(Tetra Pak)과 유로모니터가 2011년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영국·중국·브라질 등 주요 10개국 소비자들의 76%는 친환경 제품을 더 신뢰하고 있었으며, 일반 제품과 가격대가 비슷할 경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의견도 80%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포장 업계에서 최초로 탄소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한 테트라팩 코리아의 환경 담당 차재원 차장은 "테트라팩은 전 세계 식음료 제조업체를 비롯한 모든 고객사에 공급하는 포장재의 원료 구입부터 생산, 유통, 폐기 단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수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서 '녹색 선순환'에 참여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게다가 경제적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다.

녹색소비 실천 1단계

그린카드 신청하기

지난해 7월 출시된 그린카드는 현재 400만 장 넘게 발급되며 녹색생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수도, 가스 등 가정 내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등 친환경을 실천할 때 정부와 기업에서 친환경 포인트인 '에코머니'를 적립해준다. 에코머니는 2원 정부터 캐시백 신청이 가능하고 기부할 수도 있다. 그린카드 홈페이지(www.greencard.or.kr)에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녹색소비 실천 2단계

탄소성적표지 확인하기

가전부터 음료까지 녹색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쉽다. 제품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한 '탄소성적표지'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0월 그린카드 녹색제품군에 합류한 정식품 마케팅부 이석철 과장은 "담백한 베지밀 에이와 달콤한 베지밀 비 등 대표적인 6개의 제품은 이미 2009년에 탄소성적표지인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제품들의 앞이나 옆면에는 탄소성적표지가 표기돼 있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녹색소비 실천 3단계

'에코머니' 쌓기

구입하려는 제품에서 탄소성적표지를 확인한 뒤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제품 가격의 일정 비율(1~5%)을 친환경 포인트인 '에코머니'로 적립받을 수 있다. 가정 내 에너지사용 절약 또는 그린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사용실적에 따라 5~30%가 포인트로 되돌아온다.

/전효순기자

베지밀 포장팩 전면의 우측 상단에 탄소성적표지가 보인다

어그의 계절 복합쇼핑몰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어그 부츠로 잘 알려진 어그 오스트레일리아의 다양한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음 달 7일까지 배우 공효진, 스타일리스트 서은희 등이 참여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의 브랜드 클래식 작품을 전시한다. 10% 할인과 사은품 증정 혜택도 준비됐다.

식약청 '리콜테러' 왜 그랬어!

"농심라면 회수는 오판" 식품전공 교수들 지적 "벤조피렌 검출량 무해"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지만 하루 평균 삼겹살로부터 섭취하는 양(0.08㎍)보다 훨씬 적고 인체에 해가 거의 없습니다."

식품 전공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이 29일 농심 라면에서 검출된 벤조피렌 유해논란과 관련해 의견서를 내고 "식약청이 제품 회수에 나선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라면 스프로 벤조피렌을 섭취하는 양은 하루 0.000005㎍ 정도로 하루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노출되는 양과 비교한다면 1만60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한 뒤 회수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치를 설정하는 국가가 없는 실정에서 회수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식약청이 회수 권장을 내린 이후 농심의 해당 라면 제품들은 이미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 회수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전효순기자 hzjeon@

Star bag

이효리 "힐링뮤직 선물"

이효리가 1년 3개월 만에 가수로 돌아온다.

그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30일 발표하는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 앨범 '소중한 만남'에서 타이틀곡 '다시 만날 때까지'를 불렀다. 지난해 7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억해'를 발표했던 그는 이번 앨범에서 감성 보컬로 힐링 뮤직을 선사했다. 무시드 룹이 작사·작곡했다.

힙합그룹 팬텀 해외 진출

실력파 3인조 힙합그룹 팬텀이 데뷔 3개월 만에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이들은 3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갤럭시 슈퍼스타 S4 자카르타 페스트 콘서트'와 31일 현지에서 개최되는 '볼륨업 파티'에서 공연한다. 현지에는 팬텀이 데뷔할 당시 자생적으로 팬클럽이 생겼을 만큼 열기가 뜨겁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샤이니 홍콩 공연 1만여팬

그룹 샤이니가 홍콩에서 화끈한 데뷔 무대를 펼쳤다.

27일 아시아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공연에는 1만여 팬이 몰렸다. 히트곡이 이어지자 관객들은 춤과 노래를 따라하고 한국어 응원법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 공연 전 기자회견에는 동방일보·빈과일보 등 현지 매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민정 현 소속사와 재계약

배우 이민정이 소속사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2008년 한 전속 계약을 맺었던 그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재계약을 맺어 현 소속사에 대한 믿음을 보였다. 그는 "지금의 위치로 성장할 수 있게 해 준 고마운 회사다. 무엇보다 배우에 대한 애정을 갖고서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운영 방식에 신뢰가 갔다"고 밝혔다.

영화 '전당 좋은 날' 곽현화

올누드 연기 부끄럼 없다

곽현화(31)는 일반적인 잣대로 바라봐서는 종잡기 어려운 연예인이다.

개그우먼 출신으로선 보기 드물게 섹시하고 이화여대 출신에 탤런트, 가수, 다이어트 소곡을 이상 수학참고서 저자, 팟캐스트 진행자까지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있다.

때로는 파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아 대중의 선입견을 깨뜨리기도 한다.

최근엔 25일 개봉한 성인 전당 좋은 잠들 통해 전라 노출을 감행하며 영화배우에 도전했다.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에 나선 그가 대중이 모르는 자신의 진짜 모습과 속내를 낱낱이 공개했다.

영화 도전

성과 사랑에 다른 가치관을 지닌 직장인 여성 미연(곽현화)과 아라(하니경)의 이야기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나름의 스타일이 있는데 우연한 계기로 편견이 깨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활발한 성격의 나와 달리 미연은 플라토닉한 사랑을 꿈꾸는 여성이나 이성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배역에 공감하며 연기했다. 나를 내려놓는 연기를 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이 배웠다.

전라 노출

개봉 전부터 노출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과는 다른 느낌의 영화다. 노출은 이야기 전개상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 물론 부담은 있었지만 막상 연기할 땐 괜찮았다. 몰입하다 보니 부담감도 없어지고 스태프들과 감독도 배려해줬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연기가 나올 수 없다.

섹시한 여자

난 섹시하고 유쾌한 여자다. 누구나 나르시시즘이 있지 않나. 남자가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처럼 여자도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편견이 많아 아쉽다. 성은 성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콘텐츠인데 나쁘다고 막기만 하니까 성폭력 사건과 같은 범죄가 생긴다고 본다.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감출게 아니라 올바른 성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대중의 오해

요새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하는 팟캐스트 '나는 딴따라다'를 진행하면서 여성팬이 늘었다. 그동안 섹시한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편견을 가져 미안하다는 분들의 글을 보면 감동스럽다. 물론 같은 분들이 더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건 욕심이다. 다만 점차 이해하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기에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책의 매력

연예계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땐 대중의 눈치를 많이 보면서 맞추려고 노력했고, 스트레스와 고민이 많았다. 철학이나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욕심을 냈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다는 걸 알았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 누르고 감춰야 할 필요가 없더라. 서른 살이 넘으면서는 두려움도 사라져 편해졌다. 최근엔 불교 철학에 관심이 있다.

엔터테이너

한 우물을 파지 않고 여기저기 건드린다는 분들도 있고, 도전 정신이 강하고 용기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늘 한 가지였다. 대중과의 소통이었다. 날 설명한다면 엔터테이너라고 말하고 싶고, 본업을 규정짓는다면 연기라고 하고 싶다. 개그든 노래든 모든 건 연기로 통한다. 연기에 중점을 두고 싶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사진/최종수(라운드테이블) 디자인/김지연

2012년, 가장 강렬한 감성드라마가 온다!
10월 가장 기대되는 영화
올 가을 가장 기대되는 작품
1위
가을에 꼭 봐야 할 웰메이드 멜로
★★★★★
송중기라 놀랍고 송중기라 매력있다
시나리오, 연출, 연기력까지 흥행의 3요소를 두루 갖췄다
감성을 자극하는 완벽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
세상에 없던 사랑
늑대소년
10월 31일 대개봉
송중기 | 박보영

강호동이 29일 SBS '놀라운대회 스타킹'의 녹화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스타킹' 첫 녹화한 강호동 1년만에 방송복귀 심경고백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이하 '스타킹')을 통해 잠정 은퇴 후 1년여 만에 방송에 돌아온 강호동이 만감이 교차한 표정으로 복귀 소감을 털어놨다.

2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진행된 '스타킹' 녹화 직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녹화를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무대 위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리웠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기를 보내면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마음속으로 절실히 느꼈다"며 "복귀하는 마음보다는 오는 처음 데뷔하는 신인의 자세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더 사랑받는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강호동은 지난해 9월 세금 과소납부 논란에 휘말리자 4년간 진행해 온 '스타킹'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후 지난 8월 SM C&C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복귀를 선언했다.

'스타킹' 녹화를 시작으로 다음달 MBC '무릎팍 도사' 녹화에 참여하면서 비워뒀던 자리를 하나씩 되찾을 예정이다. KBS에서는 내년 초 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

/박찬하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의리남 송중기

바쁜 촬영 스케줄에도 불구 김종국 뮤비 노개런티 출연

배우 송중기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리남'의 면모를 과시했다.

그는 SBS '런닝맨'에 함께 출연했던 가수 김종국의 정규 7집 타이틀곡 '남자가 다 그렇지 뭐' 뮤직비디오에 노개런티로 출연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촬영이 이어진 가운데 콘셉트를 꼼꼼히 챙기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차 촬영에 임하는 열의를 보였다.

/유순호기자 sune@

재미있지만 2%가 부족하다

Film Review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 파괴자들

31일 개봉될 '파괴자들'의 진짜 주인공은 메가폰을 잡은 올리버 스톤 감독이다.

올해 66세인 그는 '스카페이스' '이어 오브 드래곤' '코난' 등의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해 베트남전 참전의 경험을 녹인 '플래툰' '7월 4일생' '하늘과 땅' 등 베트남전 3부작으로 '문제적 감독'의 칭호를 얻었다.

민감한 사회 문제를 계몽적으로 파고드는 주제 의식과 에두르지 않는 '과유불급'의 표현 기법이 매 작품마다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곤 하는데, 이번 작품 역시 장단점이 매우 극명하게 나눠진다.

벤(에런 존슨)과 촌(테일러 키치)은 미모의 나탈 쟁취한다. 오필리아(블레이크 라이블리)란 이름의 여성을 사이좋게(?) 공유할 만큼 절친인 이들에게 남미 최대 마약조직의 흉폭 대장이자 사이코패스 킬러인 라도(베니치오 델 토로)가 "우리와 손잡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오필리아를 납치한다.

이 영화는 마약 커넥션에 얽힌 다양한 인간군상의 종잡을 수 없는 이면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조직의 무자비한 여두목 엘레나(셀마 헤이엑)가 사이가 소원해진 딸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벤이 마약 재배로 벌어들인 돈을 아프리카 기아 돕을 위해 선뜻 쾌척하는 모습 등은 선악의 이분법적 구분을 경쾌하게 무너뜨린다.

캐릭터들은 과격하고 거칠이 일어 그 자체만으로도 보는 재미가 짜릿하다. 라도는 헤드코어 호러물의 살인마 못지않게 끔찍하고, 마약에 취해 스리섬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세 남녀는 대담하기 짝이 없다.

아쉬운 점은 2시간 넘게 숨 가쁘게 달려 도착한 결말부에 이르러선 '정작 할 얘기였던 거지?'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강렬한 캐릭터들과 지나치게 에너지 가득한 이야기 전개가 보는 이들의 결론 도출을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스톤 감독에 전작 '내추럴 본 킬러' 시절로 돌아가 용두사미의 허무한 끝맺음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럼에도 곧 칠십대로 접어들 백전노장이 젊은 시절의 열기를 되찾은 것은 무척 반갑다. 그를 좋아했던 관객들에겐 놓쳐서는 안 될 문제작이다. 당연히 청소년 관람불가다.

거장 감독 이안 신작 홍보차 다음달 내한

세계적인 거장 이안 감독이 신작 '라이프 오브 파이'의 홍보를 위해 다음 달 초 내한한다.

2000년 '와호장룡'과 2007년 '색, 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을 찾는 이안 감독은 11월 5일 여의도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소개하고 국내 취재진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다.

'라이프…'는 바다 한가운데 좁은 구명보트에 호랑이와 함께 남은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3D 어드벤처물이다. /조성준기자

그래도 훈훈했던 100만원 토론배틀

28일 온라인 사이트 일간베스트의 젊은 보수 논객인 '일베의 식칼완배당'을 자칭하는 간결과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가 1시간30분간 생중계 토론 배틀을 벌였습니다. 앞서 진 교수는 젊은 보수논객과 토론배틀쇼에 출연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요구했고, 이는 일자리는 네티즌이 대신 지불했습니다.

토론 주제는 북방한계선(NLL)과 정수장학회로 진 교수가 출연했던 SBS '시사토론'에서 펼친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토론 이후 진 교수는 출연료 전액을 쌍용차 해고노동자 돕기 계좌에 입금했으며, 네티즌 '뻥자'를 찾아 1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간결 역시 자신의 블로그에 "일계를 대가면 심각하게 무너졌다. 준비한 것은 말해보지도 못하고 소설이나 쓰고 있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한편 진 교수와 간결의 토론 배틀은 인기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이들의 토론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각: 보면서 웃다 죽는 줄 알았음~ 진실에의 니마 대학 석사 수준이 고작 저 수준이라니ㅋㅋㅋㅋㅋ

치명적 자소서: 간결의 명언 "팩트는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상대가 진중권인데 그렇게 준비를 안 해오다니. 내가 다 x팔려서

mooncree: 진중권 대너가 대단하다. 계급장 떼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상대해주다니

오로라: 간결은 사실을 가장하고 토론했고, 진중권은 가장하고 토론하는 게 토론이냐고 했죠.

가을동경: 좀 다 듣보잡. 진중권도 아무한테나 껄떡거리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막 몰아붙지요. /일리=온보람기자

또디

by 정연식 <522> 동인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역할을 바꿔 가며 말해보세요.

상황 설명 > 회사에서 처음 만난 동료끼리 서로를 소개하는 대화

A How are you?
B Fine, thanks. 제 이름은 폴이에요. I work in the marketing department.
A Oh, I see. This is my first day. My name is Harry Jones.
B Harry,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A So nice to meet you too. What's your last name?
B My last name is Kim.
A 성(姓)을 어떻게 쓰시나요?
B Kim. K-I-M.

정답 My name is Paul. / very nice to meet you / How do you spell your last name?

생생영어팁

▶ How do you do? 안녕하세요?
VS. Hello. / How are you? 안녕. / 잘 지내요?
VS. What's up? 어때?

How do you do?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영어 교재 등에서 How do you do?가 잘 안 보이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런 말은 이제 아무도 쓰지 않는 죽은 영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 정중히 인사할 때 잘 쓰이죠. 그러나 좀더 편한 자리라면 Hello, 또는 How are you?가 더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는 가장 안전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더 편한 사이에서는 What's up?을 써요. 주로 젊은 사람들끼리 아주 편하고 격의 없는 자리에서 쓴답니다. 다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라면 What's up?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______ employee is required to complete the safety program before beginning work on the assembly line.
(A) Every (B) All
(C) Few (D) Other

02 The Sandersen Company uses premium shipping ______ that can be modified to meet the diverse needs of customers.
(A) contains (B) contained
(C) containing (D) containers

01. 모든 직원은 조립 라인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해설 빈칸 뒤의 단수명사 employee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량형용사는 every밖에 없다. (B) All, (C) Few, (D) Other는 뒤에 가산명사가 올 때 반드시 복수형으로 쓴다.
어휘 employee 및 직원 complete 통 마치다, 완성하다 assembly line 조립 라인
정답 (A) Every

02 샌더슨 사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변형할 수 있는 고급 배송 용기를 사용한다.
해설 문맥상 '배송 용기'를 의미하는 복합명사로, shipping containers를 쓴다.
어휘 shipping 몡 배송 modify 통 고치다, 수정하다 meet 통 충족시키다 diverse 형 다양한 container 몡 용기, 그릇
정답 (D) containers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6 의견 말하기

주제별 표현

• 일상 생활

work out 운동하다
do house chores 집안일을 하다
go to see a doctor 병원에 가다
play a musical instrument 악기를 연주하다
go on a business trip 출장 가다
take a day off 하루 쉬다, 월차 내다
shop online 온라인 쇼핑을 하다
pay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text someone ~에게 문자를 보내다
eat out / go out to eat 외식하다
have fun with ~와 함께 즐겁게 보내다
keep in good shape 몸매를 유지하다
get one's hair done 머리를 하다
go abroad 해외에 가다
an outlet store 아울렛 매장
get something delivered ~을 배송시키다
make a video call 화상 통화를 하다
check one's e-mail 이메일을 확인하다

샌프란시스코 4연승 2년 만에 WS 탈환

샌프란시스코가 월드시리즈에서 파죽의 4연승을 기록하며 통산 7번째 메이저리그 정상에 올랐다.

샌프란시스코는 29일 열린 디트로이트와의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4차전에서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했다.

선발 맷 케인이 7이닝 동안 5피안타 3실점으로 호투했고, 불펜진이 무실점으로 디트로이트 타선을 묶어냈다. 타선에서는 마르코 스쿠타로가 3-3으로 맞서던 연장 10회 결승타를 비롯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으로 맹활약했다. 버스터 포지는 6회 투런 홈런을 날려 팀 승리를 견인했다.

이번 우승으로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텍사스를 꺾고 56년 만에 패권을 탈환한 뒤 2년 만에 다시 정상에 서는 감격을 누렸다. MVP는 1차전에서 3연타석 홈런을 날리는 등 타율 0.500을 기록한 3루수 파블로 산도발(사진)에게 돌아갔다.

/조한준기자

비 갠 뒤 쾅!쾅!

박재상·최정 4회 백투백 홈런
SK 2패 뒤 2연승…승부 원점

29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SK 박재상이 4회 솔로홈런을 친 뒤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SK 와이번스가 박재상과 최정의 연속타자 홈런에 힘입어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한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렸다.

29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4회말 박재상, 최정의 홈런 두 방으로 삼성 라이온즈를 4-1로 꺾었다.

이로써 SK는 2연패 뒤 2연승으로 단기전에 강한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양팀은 31일 오후 6시 서울 잠실구장에서 5차전 승부를 겨룬다.

선발로 마운드에 오른 에이스 김광현은 5이닝 6안타 1볼넷 하나를 내줬지만 삼진 4개를 잡는 등 1실점으로 삼성의 타선을 틀어막았다.

이날 삼성은 1회초 1사 2루를 만들었지만 후속타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먼저 온 기회를 날렸다. 4회초에도 이승엽의 내야안타와 박석민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의 찬스를 맞았다. 이어 타잔 최형우의 우중간 타구가 SK 우익수 임훈에게 잡히면서 3루를 향해 달렸던 이승엽이 2루로 귀루하지 못해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반면 SK는 경기 초반 삼성 탈보트의 구위에 눌리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2회말 공격에서 이호준, 박정권, 김강민이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하지만 4회말 1사 후 박재상이 탈보트의 144km 강속구를 그대로 받아 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115m 솔로 아치를 그려 1-0으로 리드를 잡았다. 다음 타석에 들어선 최정은 몸쪽 슬라이더를 공략, 연이어 3m 왼쪽 솔로 홈런을 만들어냈다. 순식간에 2-0으로 달아난 SK는 이호준의 우익수 앞 2루타와 김강민의 좌전안타를 보태며 3-0으로 격차를 벌렸다.

반격에 나선 삼성은 6회초 무사 2, 3루 상황에서 최형우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7회말 SK는 박정권과 김강민이 중월 2루타와 좌전안타를 터뜨린 뒤 조인성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4-1의 스코어를 만들었다. SK는 박희수에 이어 9회초 마무리 정우람이 나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제동식기자 eleven@metroseoul.co.kr

◆ 한국시리즈 4차전 전적

삼성	000	001	000	1
SK	000	300	10X	4

▲승 김광현 ▲세 정우람 ▲패 탈보트

류현진 ML행 길 열렸다

한화 포스팅시스템 실시 … "합당한 대우 받아야 허용"

류현진(25·사진)의 메이저리그행에 시동이 걸렸다.

한화는 29일 7년 차인 류현진의 포스팅시스템(최고 이적료를 써낸 구단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공개입찰제도)을 통한 메이저리그 진출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대한민국의 에이스로서 합당한 가치를 받을 경우 용인하겠다고 선을 그었고,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첫 단계인 포스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좋은 결과로 구단과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응용 감독은 "야구 선배로서 박수를 보낸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2006년 혜성처럼 등장한 류현진은 첫해 18승6패1세이브 방어율 2.23으로 프로야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올 시즌까지 7시즌 동안 98승 52패1세이브 방어율 2.80을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몸값 '1000만 달러' 한화는 얼마 원할까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류현진 딜레마에 빠졌던 한화가 결국 기둥투수 류현진의 메이저리그행을 용인했다.

한화는 그동안 류현진을 보내자니 만년 꼴찌였던 팀 성적이 걱정됐고, 잡아두자니 팬들의 반대가 심해 고민했다. 결국 취임하면 김응용 신임 감독은 얼마 전 "팀 사정상 보내기는 어렵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감독으로서 충분히 얘기가 간다. 좋게 전력에 15승 투수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013 전력 구상뿐만 아니라 4강 진입은 불가능에 가깝다. 내년 신생팀으로 1군 리그에 참여하는 NC 다이노스보다 전력이 좋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김 감독이 야인시절 "빨리 미국으로 갈수록 좋다"고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기억하는 팬들은 꽤나 섭섭했던 모양이다. 비판수위가 높아지자 "감독으로 내가 어찌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두 손을 놓았다. 공은 다시 구단으로 넘어갔고, 이적을 용인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한화는 29일 고심 끝에 류현진의 입찰을 허용하면서 내건 조건이 '에이스로서 합당한 조건'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아마 구단이 받을 이적료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ML 구단사정에 밝은 한 야구인에 따르면 류현진의 이적료는 대략 10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류현진은 일본에서 미국 볼티모어에 입단해 12승을 따낸 좌완 천웨인급 실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웨인은 연평균 400만 달러에 3년 계약했다.

그러나 천웨인은 입찰을 거치지 않았다.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아 좀 더 후한 대접을 받았다. 류현진의 경우는 이적료가 생기면 선수의 몸값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류현진은 연봉수준에 관계없이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즉 구단 이적료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SEENSEE COMPANY in association with DISNEY THEATRICAL PRODUCTIONS presents

ELTON JOHN & TIM RICE'S

AIDA

THE TIMELESS LOVE STORY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의 무대!!

뮤지컬 아이다

한국 관객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아 온
부대 예술의 걸작이 다시 시작된다!

프리뷰 할인 30% (프리뷰 기간 : 11월 27일 ~ 12월 1일)

뮤지컬 <아이다> 이집트 투어! 이벤트

나일강 강변에서 시작된 전쟁 속에 피어난 사랑 이야기!
뮤지컬 <아이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 곳, 이집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여방법 : 뮤지컬 〈아이다〉 예매 후, 이벤트 페이지에 공연관람일시와 기대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기간 : 9월 18일 (화) ~ 11월 11일(일) 당첨자 발표 : 11월 16일 (금) 신시 홈페이지

이벤트 상품 : 온라인투어 와 함께 하는 이집트패키지 여행상품권 1쌍(580만원 상당 / 제세공과금별도)
뮤지컬 〈아이다〉 브로드웨이 캐스트 OST 10명, 뮤지컬 〈아이다〉 프로그램 북 20명

자세한 내용은 신시홈페이지(http://www.iseensee.com) 를 참조하세요.

12월 2일 GRAND OPEN 디큐브아트센터

출연 소냐 차지연 김준현 최수형 정선아 안시하 이정열 성기윤 외

주최 SBS 신시컴퍼니 후원 Daum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뮤지컬 아이다

1 대형마트에서 한돈 주세요

전국 대형마트에서 20~56% 할인된
놀라운 가격으로 한돈을 만나보세요!

행사일정 11월 1일부터~11월 7일까지
행사장소 emart, Home plus, LOTTE Mart
전국 각 지점 및 농협유통 소속 25개점

2 한돈판매인증점에서 한돈 주세요

한돈판매인증점에서 40%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한돈을 만나보세요!

쿠폰 발행처 쿠팡
쿠폰 발행기간 11월 5일부터~11월 15일 예정
한돈판매인증점 전국 750여개의 음식점 및 판매점의 한돈판매인증점

3 옥션과 지마켓에서 한돈 주세요

온라인 쇼핑몰 '한돈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돈을 만나보세요!

행사일정 11월 5일부터~11월 18일까지
행사장소 AUCTION, Gmarket

4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돈 주세요

서울광장에서 파격적인 가격의
한돈을 만나보세요!

행사일정 11월 25일(일)
행사장소 서울광장